日 해충 방제 기업, 실험용 곤충 위령재 봉행

어스제약, 매년 蟲 위령재 실시
인류 위생 기여 곤충 넋 위로
"연구과정, 기업윤리 재고 시간"
숲 생명 존중 마음 기반 진행

김민재 객원기자


곤충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어스제약 연구원.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해충 방제 기업 '어스제약(Earth Corporation)'이 봉행한 실험곤충 위령재가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21일, 일본 대표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어스제약의 실험곤충 위령재 봉행 소식을 전했다.

어스제약은 1892년 창립 이후 다양한 살충 제품을 개발해왔다. 이를 위해 해충을 사육하고 연구하며 개체별로 특화된 살충제를 제작한다. 주요 공정에서는 바퀴벌레 약 100만 마리, 파리 약 10만 마리 등 다양한 해충이 사육돼 연구에 쓰인다. 태국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연구와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실험은 살충제 개발의 필수 과정이다.

실험 곤충 위령재는 실험에서 희생되며 인류 위생 개선에 기여한 곤충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로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위령재는 효고현 아코시의 묘도지(妙道寺)에서 진행됐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곤충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의식에는 바퀴벌레, 빈대, 모기 등 곤충 9종의 사진이 올려졌다. 묘도지 주지 스님이 경전을 독송하는 가운데 어스제약 연구진을 비롯한 90여 관계자들은 헌화하며 곤충들의 희생을 기렸다.

코보리 토미히로 어스제약 책임연구원은 "위령재는 단순히 곤충의 넋을 기리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연구 과정과 기업 윤리를 되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인류 위생 개선을 위해 희생된 실험곤충에 감사를 전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제품 실험과정에서 연구진들이 곤충을 도구로 여길 수 있으나 위령재를 통해 곤충들의 희생에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어스제약은 '생명존중'과 '지속가능성'을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 실험 곤충 위령재는 이러한 철학의 실천 중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해충을 제거해야할 존재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며 경영 방침을 구축하고 있다. 어스제약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 희생을 존중하며 과학적 연구와 윤리적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곤충 또한 업보에 따라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어스제약의 곤충 위령재 전통이 이어져왔다. 또한 일본에는 '충공양(虫供養, 무시구유)'라는 곤충 추모 행사가 존재하며 인도와 태국에도 유사한 문화가 있다. 이러한 전통은 곤충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다.

어스제약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명의 희생을 기리며 단순한 방제 기업을 넘어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日 사찰서 만나는 '불교×현대기술' 향연

안드로이드 관음 설법
'드론 25 내영불' 등


안드로이드 관음상 '마인더' 앞에서 합장한 덴쇼 스님.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불교와 현대 최신 기술을 접목해 불교 홍포 시도를 거듭하는 일본에서 새해를 맞아 주목할 만한 시도들이 선보여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불교문화의 고도로 불리는 교토 사찰들의 신기술 도전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교토시 중심부의 고다이지(高台寺)에는 높이 195cm, 무게 60kg의 알루미늄 불상이 있다. 실리콘 소재로 덮인 얼굴과 손 이외에는 모두 금속 부품이 노출돼 있어 불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조용히 깜빡이는 눈, 두 손을 합장하는 모습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마인더'라는 이름의 불상은 2019년 처음 개발돼 대중에 공개된 '안드로이드 관음상'이다.

관음상은 내장된 카메라로 참배자들을 확인하고 법문한다. 법문은 사찰에 속한 임제종 켄닌지파 스님들의 경전 풀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마인더를 고안한 고다이지 전 집사장 고토 덴쇼 스님은 "직접 눈을 맞추고 말을 걸어오는 불상이 있다면 불법이 대중들에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해서 불상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연구 권위자 이시쿠로 히로시 오사카대 교수와 함께 개발한 안드로이드 관음상은 지금까지 4만여 참배자들에게 법문을 전했다.

덴쇼 스님은 "불교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편과 근기에 맞는 설법으로 발전해왔다. 새로운 안드로이드 불상이 모두의 선지식이 돼 삶의 고뇌에 해법의 실마리를 전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안드로이드 관음상 활용을 이어갈 것을 알렸다.

또한, 17세기 초 창건된 료간지(龍岸寺)는 불화 속 이미지를 현실에 재현했다. 아미타불과 25보살이 염불행자를 극락정토로 맞이하러 온다는 '아미타25보살 내영도'를 드론으로 구현한 것이다.

'드론 내영불' 프로젝트는 료간지 주지 이케구치 류호 스님과 미우라 요잔 불상조각가의 의기투합에서 시작됐다. 요잔 씨는 "과거라면 기술적 한계로 천장에 매달거나 벽에 부착했지만, 현대기술이라면 불상을 공중에 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목제불을 본따 경량수지제로 복제한 불상을 손바닥 크기 드론에 태워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드론 내영불은 현재 염불철야정진 등 다양한 일본 불교 행사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후 25보살상을 모두 갖춰 지난해부터는 불상에 개금해 금빛 내영도를 구현해냈다. 류호 스님은 "불자들 중 장례식장에서도 띄워주길 바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불교의 가르침과 포교법 중 100년 전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던 것이 지금은 선례로 남은 것이 많다"며 "앞으로 100년 후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지 기대된다"고 정리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베트남 '맨발의 순례자' 서적 출판 승인 지연

틱민투 발언집 3달째 승인 지체


인도를 향해 도보순례를 진행 중인 틱민투는 현재 태국을 순례 중이다. 사진출처=RFA

'맨발의 순례자'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베트남 불교 수행자 틱민투(Thch Minh Tu)의 저서가 3달째 출판 승인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다. 미국의 '자유 아시아 방송(RFA)'는 1월 3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자세한 상황을 전했다.

'틱민투'라는 법명을 가진 불교수행자 레안투(Le Ahn Tu)는 2017년부터 6년간 삭발한 머리, 수선한 분소의 3벌, 낡은 발우만을 들고 베트남 전역을 순례하며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출가자가 아니며 스스로 수행자라고만 소개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사회안전문제 발생 방지를 이유로 그를 일시 구금한 바 있다.

황논 베트남 카이탐 문화주식회사 이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틱민투가 유튜브를 통해 불교에 관해 토론한 내용을 담은 책 〈바람에 맞서는 향기〉 출판을 위해 지난 9월 베트남 정보부에 허가 요청과 보증금을 접수했다"면서 "당국은 접수 14일 이내 책의 출판 가부를 결정해야하나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밝혔다.

황논 이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바람에 맞서는 향기〉는 지난 6월 초, 베트남 당국이 베트남 드어티엔후에성에서 순례하던 틱민투와 지지자들을 해산시킨 직후 다낭의 출판사와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라며 "여태 당국은 출판 가부에 대한 공식 서한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체 누가 책 출판을 금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사안은 출판사의 권한은 물론 출판, 인쇄, 유통 당국의 권한도 넘어섰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베트남 당국이 시민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왜 틱민투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전달돼 사회적 공감 얻기를 막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현재 틱민투는 지난해 11월 말 인도로 향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해 현재 라오스를 통과, 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빈 객원기자

기근·식량위기에 미얀마 불교도 급증

식량 원조 제공 불교 귀의↑
생존 위한 개종 사례 증가

극심한 기근과 식량 위기를 겪는 미얀마 나가 자치구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미얀마 언론 '미지마'는 지난해 12월 22일 나가 자치구 주민 사이에서 나타난 불교 개종 성행 소식을 보도했다.

미얀마 북서부 나가 구릉 일대의 나가 자치구 사팔로우 아 눈트 곤 마을(Sappalaw Ah Nount Gone) 주민 400여 명이 최근 식량을 제공하는 불교에 귀의하고, 타종교로 개종하면 마을을 떠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나가족은 19세기 영국인 선교사의 영향으로 인구의 90%가 기독교도다.

사팔로우 마을은 지난 3년간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해 심각한 기근과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 사다마 조티카다자 바단타 판디타 마을대표는 흉작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미얀마 제272보병대대가 1천만 카트(한화 약 690만원)에 이르는 쌀, 콩, 식용유, 소금, 찻잎 등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기근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아미오타 흐루토 나가 자치구 전 상원의원은 "자발적으로 불교로 개종한 사례도 있지만 기근과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는 마을대표들이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불교 개종을 권유한다"며 "식량 지원을 받은 주민 중 일부는 기독교로 재개종을 원하지만 마을 추방을 꺼린다. 대부분의 불교 개종 주민은 명목상 불자로 도시 공무원들만이 불교 수행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근으로 인한 종교 개종 사례는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필리핀 등지에서는 특정 종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 속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 같은 현상은 기근, 생계, 안전 문제 등이 종교 귀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재 객원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 주 문 : 043) 297-2514
●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